

遼寧省朝陽北塔出土塑造像研究*

양 은 경**

- I. 머리말
- II. 북탑의 조사 현황과 출토 유물
- III. 소조상의 조성연대와 조각양식의 연원
- IV. 봉안 장소와 원형 추정
- V. 맺음말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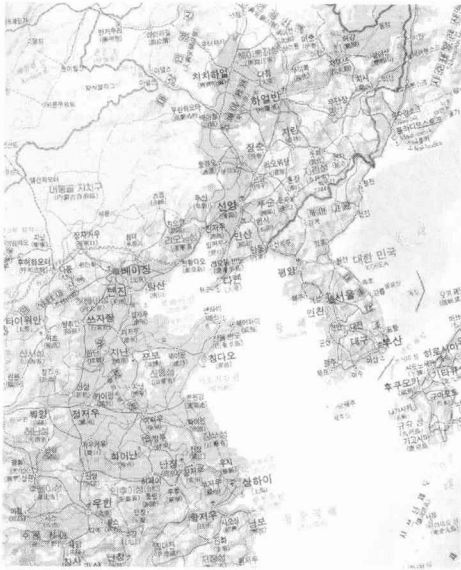
북탑은 요녕성 조양시 雙塔街에 위치하고 있으며도¹, 조양시에는 북탑 이외에 南塔과 東塔址가 현존한다. 북탑의 현 높이는 42.6m이며 方形 평면의 13층 磚塔이다. 북탑은 기단, 탑신,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도².¹

1986년 북탑의 남쪽 퇴적층에서 불상, 보살상, 제자상, 비천상, 연화화생상, 사자머리, 건축기둥 등의 소조상이 출토되었다. 이 소조상들은 모두 파손된 채 출토되어 완전한 예는 없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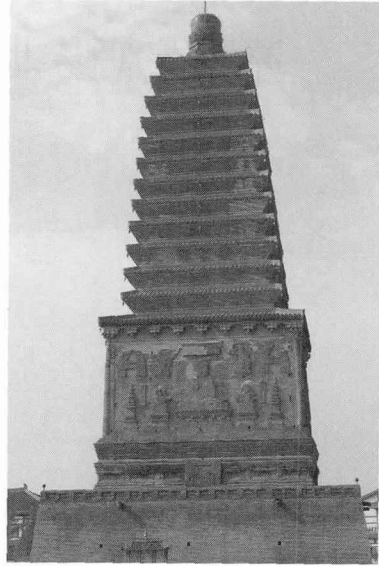
* 이 논문은 “200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¹ 杜斌主編, 『朝陽北塔—中國東北第一塔』(吉林攝影出版社, 2006), p.2.



도 1 遼寧省과 朝陽市 위치도



도 2 朝陽市 北塔 전경, 塔塔,
높이 42.6m(필자 사진)

며, 현재 朝陽市北塔博物館과 遼寧省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3,2} 발굴된 이후 지금까지 자료정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출토수량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 나아가 소조상의 정확한 높이, 제작시기, 양식 원류, 봉안 장소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지금까지 발굴이 이루어진 남북조시대 사원 유적지로는 조양 북탑을 비롯하여 산서성 대동시 方山 思遠佛寺, 내몽고 包頭市 城隍圖 유적지, 하남성 낙양시 永寧寺, 하북성 鄴南城 사원 유적지 등 5곳 정도이다. 모두 목탑지를 중심으로 발굴이 이루어졌으나 정확한 발굴경과와 복원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영녕사가 유일하다. 또한 사원 유적지에서 출토된 소조상의 편년과 조각양식, 봉안장소에 대해서도 영녕사만이 조사·연구되었을 뿐 나머지는 연구가 미비하다.

북탑이 소재한 조양시는 古來로 요녕지역의 중심 도시였으며 고구려와의 관련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 370년 前燕을 멸망시킨 前秦은 372년 고구려에 불교를 전래하였는데

² 요녕성박물관에 전시된 두부, 신체의 잔편 수량은 모두 12점이며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河文明展—文物集粹』(2006), p.140에 보살입상 2점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에는 보살입상이 불입상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도 3 遼寧省博物館 소장 북탑 출토 소조상과 소조보살상, 소조, 복원 높이 20-35cm(필자 사진)

당시 전진의 수도 장안에서 동북의 전연 땅, 다시 말해 당시 전연의 수도였던 龍城(현 조양)을 거쳐서 고구려로 가는 노선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후 북위의 불교와 불교 미술이 고구려로 이동하는 데에도 조양은 교통노선 상 중요한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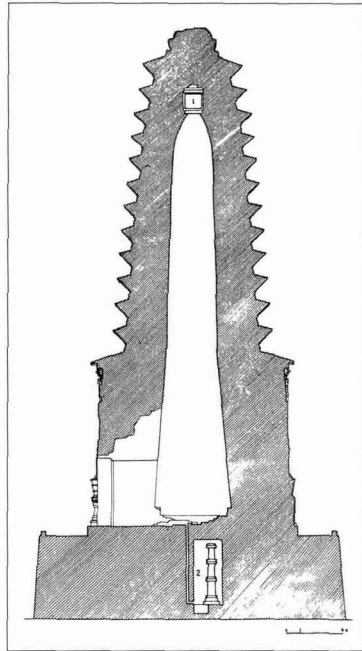
북탑 출토 소조상을 연구하는 것은 중국 내 남북조시대 사원 유적지에서 출토된 소조상의 양식비교, 봉안 장소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 내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구려 불상을 연구함에도 좋은 비교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중요한 북탑 출토 소조상에 대해 필자는 우선 북탑의 조사 현황과 출토 유물, 건립내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소조불의 조성시기와 조각양식의 연원에 대해 요녕, 산서, 내몽고, 하남성 등 여러 지역 불상과의 비교 관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소조상의 봉안 장소에 대해 영녕사의 예를 중심으로 동시대 석굴,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북탑의 조사 현황과 출토 유물

북탑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훼손상태가 심각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탑과 북탑 주변 조사와 출토 유물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1973년 탑 기단 동남쪽의 磚洞에서 불좌상 1구, 무사상 4구가 출토되었다^{도4}. 불좌상의 현존 높이는 36cm이며 삼존상이다. 조각양식으로 판단하면 북위대로 비정된다. 무사상의



도 4 北塔 출토 武士像, 石,
높이 71.5cm,
朝陽市北塔博物館
(필자 사진)

도 5 北塔 斷面圖와 天宮,
地宮의 위치:
1. 천궁,
2. 지궁
(朝陽北塔考古勸察隊,
「遼寧朝陽北塔天宮地
宮清理簡報」, 『文物』
7[1992], p.1, 도2)

높이는 71.5cm이며 당대 작품으로 간주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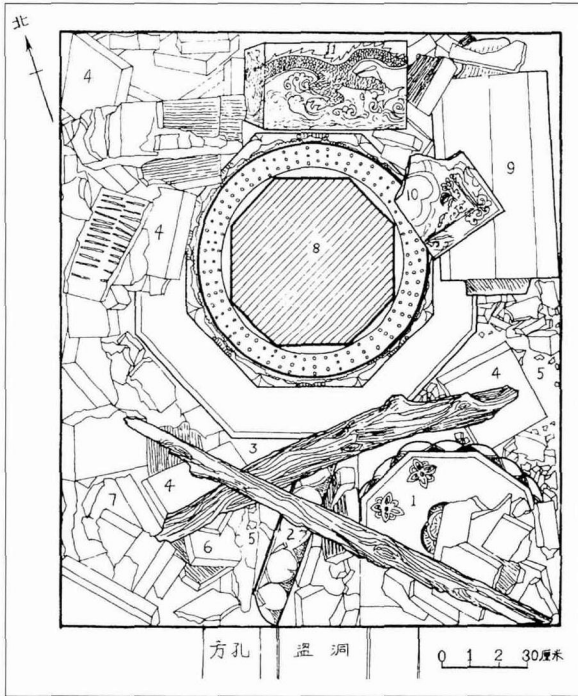
1984년부터 중국정부의 후원으로 북탑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1986년 봄에는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와 朝陽市博物館이 연합하여 北塔考古勸察隊를 조직하여 같은 해 5월 5일-12월 말까지 탑 주위를 발굴하였다.⁴

1986년 11월 탑 기단의 흙으로 조성된 基臺와 벽돌로 쌓여진 基座 사이에서 地宮이 발견되었다. 지궁은 장방형을 이루며 문은 없다^{도5}. 남북 길이 2.05m, 동서 너비 1.76m, 높이 4.48m이며 벽돌로 축조되었다. 지궁 내부에서는 팔각형 石經幢 1기, 石函 1기, “第三度重修”銘 벽돌, “砌匠作頭”銘 벽돌, 도자기 18점, 각종 구슬장식 374립, 대나무에 새겨진 인물상 2구, 銅 장식물 5기, 동전 33매가 출토되었다^{도6}.

석경당 몸체에는 불상, 탑명, 佛經咒語 등이 새겨져 있다. 특히 제4절 경당 몸체의 끝부분에 새겨진 “司司幹轅享勸梵書東班小底張日新書大契丹國重熙十三年歲次甲申四月壬辰朔

³ 張劍波·王晶辰·董高, 「朝陽北塔的結構勸察與修建歷史」, 『文物』7(1992), p.35.

⁴ 朝陽市北塔考古勸察隊·朝陽市北塔維修班公室, 「朝陽北塔1986-1989年的考古勸察紀要」, 『遼海文物學刊』2(1990), p.15.



도 6 北塔 地宮 유물 분포도:
 7. “第三度重修”銘 벽돌,
 8. 經幢
 (朝陽北塔考古勸察隊, 앞의 논문,
 p.17, 도35)

八日己亥午時再葬訖像法更有七年入末法石匠作頭劉繼克鏤孟承齋鏤”라는 내용으로 인해 요대 1043년 지궁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궁 내부에서 출토된 “第三度重修”銘 벽돌에 음각으로 새겨진 “霸州邑衆諸官同共齊心結緣第三度重修所有寶安法師奉隨文帝敕葬舍利未獲請後知委”의 내용으로 수 문제 사리탑 건립활동 당시 이곳에 탑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

같은 해 북탑 주위를 시굴 조사하였다. 남쪽 13m되는 지점에서 남북조, 당, 요대 퇴적층이 확인되었으며 기와편, 소조상 등이 출토되었다.⁶

1988년 11월 탑 정상부를 제거하던 작업 중 13층에서 天宮이 발견되었다^{도5}. 천궁은 벽돌로 축조되었으며 평면이 ‘中’자형을 이룬다. 宮室은 방형이며 길이 1.3m, 너비 1.39m이다. 궁실 내부와 門道 아래에는 방형 石函을 각각 하나씩 두었다. 궁실 내부의 큰 석함 안쪽에서는 금은사리탑^{도7}, 金銅보살상, 銅보살상, 백자, 銀製 장신구, 유리병, 수정 등이 출토되

⁵ 朝陽北塔考古勸察隊, 「遼寧朝陽北塔天宮地宮清理簡報」, 『文物』 7(1992), pp.21-28.

⁶ 張劍波·王晶辰·董高, 앞의 논문, p.34.



도 7 金舍利塔, 높이 11cm, 朝陽市北塔博物館
(紀兵·王晶辰, 『佛教遺寶』(遼寧人民出版社,
2005), p.39)

었다. 문도 아래의 작은 석함에서는 동전, 동경, 수정, 銀製 香囊, 옥, 금탑, 금동보살상 등이 발견되었다.⁷

큰 석함의 門板 외부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많은 글자가 박락되어 몇 글자만 판별할 수 있는데, 끝부분에 “大契丹重熙十二年四月八日午時再葬像法更有八年入末法故置斯記”라는 명문이 있다. 또한 석관 좌우의 벽돌에는 “延昌寺塔”이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⁸ 이로써 지공은 요대 1044년 축조되었으며 당시 이 탑은 ‘연창사탑’으로 명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 가을 북탑은 國務院으로부터 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었다. 이어 1990년 봄, 탑으로부터 동쪽으로 40m 떨어진 곳에서 “萬”, “貴康”자가 새겨진 기와 파편이 발견되었다.⁹ 이후 1992년까지 발굴과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북탑 조사를 통해 북탑은 복위, 수, 당, 요대에 각각 건립, 재건,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현존하는 북탑의 기단은 복위, 수, 당대의 것이며 상부 탑심체는 당대, 13층의 전탑 외관은 요대에 축조된 것이다.

북탑의 건립 내력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된다.

우선 1986년 북탑 기단부 속의 주춧돌의 조사를 통해 이 주춧돌은 三燕, 복위대에 조성되었다고 여겨진다. 주춧돌은 평면이 정방형이며 내외로 이중을 이루고 있다. 바깥쪽 주춧돌은 모두 20개이며 안쪽은 12개이다. 안쪽 주춧돌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바깥쪽 사방 모서리 부분의 주춧돌은 방형의 覆斗式, 覆盆式이다. 주춧돌에는 용, 봉황, 호랑이 등이 조각되어 있다⁸. 동남쪽 모서리의 복두식 주춧돌은 漢代-魏晉代 성행한 양식을 보이며 나머지 복분식 주춧돌은 魏晉南北朝代 양식이다.¹⁰ 주춧돌의 형태는 조양시 袁臺子墓(동진)에서 출

⁷ 紀兵·王晶辰, 『遼寧歷代佛教文物集粹—佛教遺寶』(遼寧人民出版社, 2005), p.4.

⁸ 朝陽北塔考古勘察隊, 앞의 논문, pp.1-17.

⁹ 董高, 「朝陽北塔“思燕佛圖”基址考」, 『遼海文物學刊』 2(1991), p.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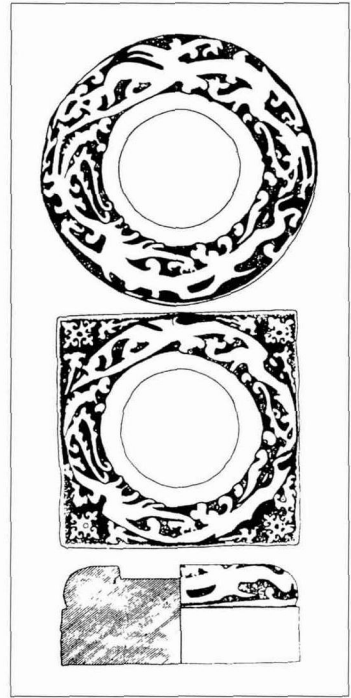
토된 주춧돌과 동일하며,¹¹ 주춧돌의 윗면에 새겨진 용, 봉황 등의 문양은 조양 부근의 삼연 무덤에서 출토된 마구에 새겨진 문양과 흡사하다.¹²

북탑 유적지에서 출토된 소조상들의 양식을 통해 현 북탑 위치에는 북위 문명대후의 발원으로 사연불도가 건립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다음 장에서 서술).

『廣弘明集』卷十七「佛德篇·慶舍利感應表」에는 “營州舍利三度放光白色舊龜石自然析解用書石函”라는 기록이 있다.¹³ 수대에 사연불도 자리에 탑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현존하는 탑의 상황에서는 수대 흔적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현존하는 북탑 내부의 방형 室과 외부의 남쪽 券門 정도가 唐代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탑체는 위아래가 뚫려 있으며 위로 갈수록 면적이 좁아진다. 당대 탑은 15층 磚塔이다. 특히 7층 처마 중 남쪽 卷草文 서쪽에 “天寶”라는 朱書 두 글자가 현존한다. 이로써 이곳에 채색이 가해진 시기는 현종 천보년간(742-756)임을 알 수 있다.¹⁴

북탑의 지공과 천공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요대에 두 번의 대대적인 중수가 가해졌다고 추론된다. 1차 중수에는 흙기단 둘레를 벽돌로 메워 현재의 방형 기단을 형성하였으며, 각 층에 白灰를 다시 칠하였으며 券門, 塔心室을 만들었다. 2차 중수는 대규모로 이뤄졌는데 동, 서, 북쪽에 가짜 문을 설치하고 券門, 塔心室을 다시 보수하였다. 또한 지공, 천공을 만들었으며 탑신의 네 면에는 불좌상 1구, 보살입상 2구, 비천, 코끼리, 말, 공작, 탑명 등을 조각하였다도2. 1차 중수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2차 중수는 1043년, 1044년에 이뤄졌다. 또한 당시 이 탑



도 8 北塔 주춧돌 실측도
(董高, 「朝陽北塔“思燕佛圖”基址考」, 『遼海文物學刊』 2[1991], p.100, 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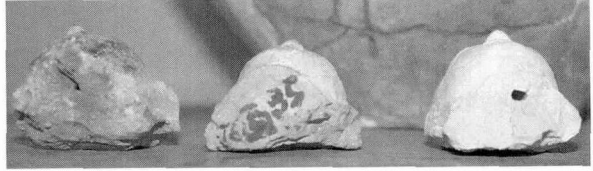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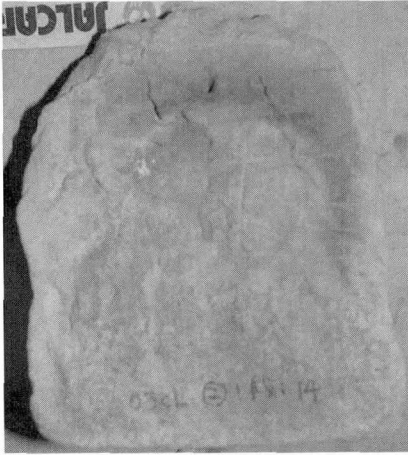
¹⁰ 董高, 앞의 논문, pp.97-101.

¹¹ 무덤 안쪽에 놓인 漆案의 네 모서리 아래에 주춧돌이 각각 하나씩 놓여 있다. 평면은 방형이며 복분식이다. 높이는 6.9cm, 길이는 13.5cm이다.

¹² 田立坤·李智, 「朝陽發現的三燕文化遺物及相關問題」, 『文物』 11(1994), pp.20-32.

¹³ 『廣弘明集』卷十七(上海古籍出版社, 1994), p.226 참고.

¹⁴ 張劍波·王晶辰·董高, 앞의 논문, p.31.



도 10 北塔 출토 塑造佛頭 밑면, 塑造, 높이 5cm 추정,
朝陽市北塔博物館(필자 사진)

도 9 北塔 출토 塑造佛像 뒷면, 塑造, 높이 25cm 추정,
朝陽市北塔博物館(필자 사진)

은 연창사탑으로 불렸다.¹⁵

위의 건립 내력을 종합하면 현 북탑의 위치에는 북위대 사연불도란 명칭의 목탑이 처음 건립되었으나 소실되었으며 이후 수, 당, 요대 중수를 거쳐 현재 전탑이 남아 온다.

III. 소조상의 조성연대와 조각양식의 연원

북탑 출토 소조불상은 모두 좌상이며 보살상은 입상이다^{도3}. 소조상의 뒷면은 평평하며 윗쪽에 홈이 파여져 있어 벽면에 걸쳐 둔 흔적이 뚜렷하다^{도9}. 불상과 보살상은 목 부분에 홈이 파여져 있어 머리와 몸체를 따로 제작한 후 목심, 철심 등을 이용하여 결합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도10}. 소조불상과 보살상의 제작연대와 조각양식 연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요녕지역 불상과의 비교를 통한 소조상의 조성연대와 양식 연원

북탑 출토 소조불상의 殘高는 30cm가 되지 않는다^{도11}. 얼굴은 둥글며 肉髻는 높고 素髮이다. 通肩衣를 걸치고 禪定印을 하고 있다^{도12}. 이러한 불상양식은 415년 축조된 馮素弗

¹⁵ 張劍波·王晶辰·董高, 앞의 논문, pp.3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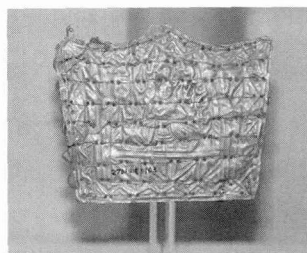
도 11 北塔 출토 塑造佛像, 塑造,
높이 25cm 추정,
朝陽市北塔博物館(필자 사진)



도 12 北塔 출토 塑造佛像, 塑造,
높이 25cm 추정,
遼寧省博物館(필자 사진)

墓에서 출토된 金飾의 인쪽에 표현된 삼존불상도¹³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¹⁶

하지만 옷주름선의 처리방식에서 두 작품은 차이점이 뚜렷하다. 북탑 출토 소조상은 통견식과 우견편단식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 이 중 통견식 가사를 걸친 불좌상은 옷주름선이 음각으로 얇게 V자형으로 목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내려오며 두 손 아랫부분에서는 수직으로 주름선이 표현되었다. 또한 두 팔목부분에서 옷주름선이 물결무늬를 이루며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특히 둥근 옷깃의 오른쪽 끝자락이 왼쪽 어깨 뒤로 넘겨진 다음 왼쪽 어깨를 따라 아래쪽으로 물결무늬를 이루며 길게 표현되어 있다^{도12}.



도 13 馮素弗墓 출토 帽正, 金,
높이 6.8cm, 폭 7.6cm,
遼寧省博物館(필자 사진)

우견편단식의 경우는 대의가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후 오른팔 가장자리를 휘감고 있다. 또한 이 옷자락은 왼쪽 어깨를 덮은 이후 대의의 끝자락이 어깨 뒤쪽의 가장자리를 따라 아래로 표현되어 있다. 오른쪽 팔, 가슴을 가로 지른 옷자락은 모두 구불구불한 물결무늬를

¹⁶ 풍소불묘의 예는 冠 앞쪽에 붙이는 帽正으로 높이 6.8cm, 폭 7.6cm이다(黎瑤渤, 『遼寧北票縣西官營子北燕馮素弗墓』, 『文物』 3(1973), p.10).



도 15 鳳凰山 雲接寺, 遼寧省 朝陽市 소재(필자 사진)

도 14 金塔寺石窟 東窟 中心柱 서쪽면 佛交脚像, 北涼, 塑造, 甘肅省 張掖市 남쪽 소재(필자 사진)

이루고 있다¹¹.

이러한 대의 표현방식은 풍소불묘 출토 불상과는 차이가 나며 오히려 병령사석굴 제 169굴의 서진대 불상, 북량석탑 중 426년명 마덕혜탑의 불상, 막고굴 제268·272굴, 금탑사 동·서굴 불상¹⁴ 등 감숙지역 오호십육국시대 불상과 유사하다. 오호십육국시대 감숙지역의 이러한 불상 대의표현은 당시 쿠차, 호탄 등의 서역 불상과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보인다.¹⁷

사실 요녕지역에서 불교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晉書』 卷一百九 「載記第九·慕容皝」이며, 345년 龍山에 龍翔佛寺를 세웠다는 내용이다.¹⁸ 이 기록은 『資治通鑑』 卷九十七 「晉紀十九」,¹⁹ 『十六國春秋』 「前燕錄」,²⁰ 『水經注』 卷十四 「大遼水」에도 보인다.²¹ 전연 345년 용산, 즉 현재의 鳳凰山에 불교사원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이보다 이른 시기인 338년 後趙의 石虎가 佛圖澄을 동반하여 요서를 공격할 당시 후조

¹⁷ 양은경, 「甘肅省 金塔寺石窟의 개착 년대와 北涼불교와의 관계」, 『美術史學』 20(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6), pp.148-159.

¹⁸ “時有黑龍白龍各一，見于龍山，皝親率羣僚觀之，去龍二百餘步，祭以太牢，二龍交首嬉翔，解角而去。皝大悅，還宮，赦其境內，號新宮曰和龍，立龍翔佛寺于山上。” 『晉書』(中華書局, 1996), pp.2825-2826.

¹⁹ 『資治通鑑』(中華書局, 1992), pp.3065-3066.

²⁰ 崔鴻 撰, 『十六國春秋』-王雲五主編 國學基本叢書(臺灣商務印書館印行, 1968), p.66. 하지만 『資治通鑑』과 『十六國春秋』에는 348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²¹ 史念林等注, 『水經注』上(華夏出版社, 2006), p.301.

의 발달된 불교가 요서지역에 소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전연은 352년 후조를 멸망시켰으며 357년 수도를 鄴으로 옮김으로써 후조의 발달된 불교와 불교문화를 몸소 체험했을 것이다.²² 허북 定縣의 송대 塔基 내부의 석함에 새겨진 명문으로 인해 후연의 모용선비족이 384-397년 수도였던 中山(현 허북성 정주 일대)에 불사활동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³

이후 397년 후연은 용성으로 수도를 다시 옮겼는데, 慕容寶와 승려 支曇猛과의 관계, 慕容熙가 407년 王后 符氏의 죽음 당시 승려들에게 素服을 입게 한 사실 등은 용성에서의 불교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²⁴

북연의 불교 상황은 『高僧傳』에 기록된 북연 출신 승려들의 활약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승려로는 420년 25명의 동행자와 함께 西行을 추진하여 南天竺까지 간 曇無竭,²⁵ 북연과 강남에서 각각 金像을 주조한 僧詮, 강남 栖霞寺 住持로써 大佛 조성에 참여한 法度 등이 있다.²⁶

이처럼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삼연의 불교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으나 현존하는 불상 자료는 아주 미비하다.

북탑 출토 소조상의 양식은 요녕성 義縣 萬佛堂石窟 제6굴도16 후벽의 불감 속에 현존하는 불좌상과 연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¹⁷. 이 불좌상은 통견의를 착용하고 선정인을 결하고 있다. 육계는 높으며 소발이다. 두 팔목에서 세로의 옷주름선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조각양식은 기본적으로 북탑 출토 소조상과 흡사하다. 제6굴과 인접한 제5굴은 석굴 내부에 현존하는 비문 “太和二十三年營州刺史元景造窟題記”로 인해 499년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굴구조, 조각양식 등으로 미루어 제6굴은 제5굴과 비슷한 시기인 太和年間に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⁷

²² 董高, 「三燕佛教略考」, 『遼海文物學刊』 1(1996), pp.1-2.

²³ 定縣博物館, 「河北定縣發現兩座宋代塔基」, 『文物』 8(1972), pp.39-42.

²⁴ 董高, 앞의 논문, p.2.

²⁵ “釋曇無竭, 此云法勇, 姓李, 幽州黃龍人……遂以宋永初元年(420), 招集同志沙門僧猛, 曇朗之徒二十五人, 共齋幡蓋供養之具, 發蹟北土, 遠適西方……” 『高僧傳』 卷三 譯經 下 「宋黃龍釋曇無竭」(慧皎撰·湯用彤校注, 『高僧傳』[中華書局, 1996], pp.93-94).

²⁶ “釋法度, 黃龍人, 少出家, 遊學北土……宋末遊于京師, 高士齊郡明僧紹, 抗迹人外, 隱居琅琊之攝山……度與紹並爲齊竟陵王子良, 始安王遙光恭以師禮, 資給四事……” 『高僧傳』 卷八 義解 五 「齊琅琊山釋法度」(慧皎撰·湯用彤校注, 『高僧傳』[中華書局, 1996], pp.330-332).

²⁷ 劉建華, 『義縣萬佛堂石窟』(科學出版社, 2001), pp.94-99.



도 16 義縣 萬佛堂石窟 西區 제6굴 전경, 北魏, 石,
遼寧省 義縣 소재(필자 사진)



도 17 義縣 萬佛堂石窟 西區 제6굴 後壁 불좌상,
北魏, 石, 遼寧省 義縣 소재(필자 사진)



도 18 北塔 출토 塑造菩薩像, 塑造,
높이 15-20cm 추정,
遼寧省博物館(필자 사진)



도 19 炳靈寺石窟 제169굴 11호감 아래쪽의 벽화,
높이 2m, 넓이 1.1m, 甘肅省 永靖縣 서남쪽
소재 (董玉祥主編, 『炳靈寺一六九窟』[海天出版
社, 1994], 사진 34)

북탑 출토 보살입상의 두 어깨를 덮은 천의는 佛衣와 유사한 통견의로 처리되어 있다
도 18. 옷주름선이 음각으로 얇게 V자형으로 목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내려오며, 천의의 아랫
단 끝부분은 구불구불한 물결무늬를 이룬다. 이러한 보살상 천의 표현방식은 금탑사석굴 동
굴 중심기둥 서쪽 면 중간층 보살입상, 병령사 제169굴 벽화 속의 보살입상도 19 등 감숙지역
오호십육국시대 보살상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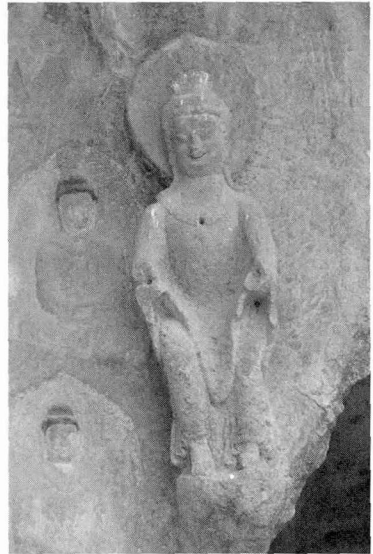
그러나 서진, 북량시기 통견의 보살상의 손은 합장하거나 소매 속에 감추어져 있다. 윗옷 역시 무릎 아랫부분에서 물결무늬를 이루며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어 북탑 출토 보살상의 직접적인 양식 연원은 되지 못한다. 북탑 출토 보살상은 오히려 만불당석굴 제6굴 후벽의 보살상과 흡사하다²⁰. 만불당 제6굴의 예는 통견식 윗옷을 입고 있으며 두 무릎의 중간부분에서 삼각형을 이루며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1973년 북탑에서 출토된 석불상, 喀左縣博物館 소속 天成觀 소장 2구의 석불상 역시 북탑 출토 소조상과 좋은 비교자료가 된다. 천성관의 단독 석불좌상은 태화년간에 성행한 우견편단식 대의를 착용하고 있다.

특히 천성관에 소장된 삼존상은 2002년 7월 15일 객좌현 南哨鎮에서 발견되었다. 전체 높이는 1.5m이며 불좌상의 높이는 1.1m, 보살상은 0.6m이다.²⁸ 광배 뒷면에 새겨진 명문은 “大魏正始三年六, 月十三日諸葛熹, 爲七歲父母前□□, 孔□□尊子□□大□□造, 像一軀願生光妙, 各園, 以伏會”으로,²⁹ 이 불상이 506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506년은 선무제 집정기간으로 낙양이 수도였을 시기이다. 이 당시 평성, 낙양지역에서는 褒衣博帶式, 秀骨清像 등의 조각양식이 성행한다. 동시기 요녕지역의 이 불상에서는 이전 시기 형성된 태화양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불동석굴의 서구 제1굴은 석굴구조, 조각양식을 통해 위의 제5, 6굴과 같이 운강 제2기, 즉 태화년간에 개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포의박대식 가사, 수굴청상 등은 태화년간에 성행한 양식보다는 늦은 시기에 유행한 것이다²¹. 이러한 조각양식은 북탑 출토 조각상보다 늦은 시기에 해당된다.

만불당석굴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尙姑堂石窟 역시 좋은 비교자료가 된다. 1989년 가을에 발견된 상고당석굴은 義縣 頭大鄉 尙姑堂村 西山에 개착되어 있다. 單窟이며 현재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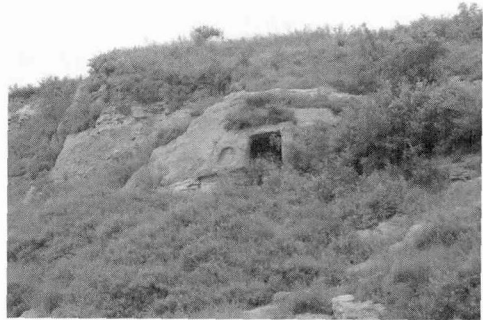
도 20 義縣 萬佛堂石窟 西區 제6굴
後壁 보살입상, 北魏, 石,
遼寧省 義縣 소재(필자 사진)

²⁸ 劉雲輝, 「大雨冲出三尊石佛」, 『遼沈晚報』 2002年 9月 2日.

²⁹ 명문은 필자가 직접 조사한 내용이며 구두점은 불상에 새겨진 띄어쓰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임.



도 21 義縣 萬佛堂石窟 西區 제1굴 중심기둥의 삼존상, 北魏, 石, 遼寧省 義縣 소재(필자 사진)



도 22 義縣 尙姑堂石窟, 길이 4.5m, 너비 4.3m, 높이 2.3m, 義縣 頭大鄉 尙姑堂村 西山 소재 (필자 사진)

화상태가 심각하다^{도22}. 평면은 방형이며 평평한 천정을 이룬다. 동서 길이는 4.5m, 남북 너비 4.3m, 높이 2.3m이다.³⁰ 석굴 내부의 조각상은 소실되었으며 석굴구조, 굴 외부에 조각된 역사상과 처마의 흔적 등으로 복원 만기에 개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탑 출토 소조상과 비교되는 요녕지역 내의 불상 재료는 금속, 돌이다. 흙을 재료로 한 陶俑은 아쉽게도 소량의 출토품만이 현존할 뿐이다. 조양을 중심으로 발견된 三燕, 北魏墓에서 출토된 유물은 馬具, 帶鉤, 步搖 등 금속제 제품들이며 많은 출토수량과 더불어 제작기술 역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¹ 도용은 삼연 前山墓에서 출토된 예가 대표적이다. 전산묘에서는 인물상 1구, 말 1구가 출토되었으며 모두 손빛기로 제작되었다.³² 조형은 단순하고 동시기 기타 지역 도용과 비교하면 아주 조잡한 편이다.

『高僧傳』卷七「義解」四 宋餘杭方顯寺 釋僧詮의 기록 “釋僧詮姓張, 遼西海陽人……後過江止京師……詮先於黃龍國造丈六金像, 入吳又造人中金像, 置於虎丘山之東寺”에서,³³ 승전은 북연에서 장육금상을 주조하였으며 북연이 멸망한 이후에는 송으로 남하하여 역시 금상을 주조하였다. 이 기록은 북연의 우수한 금속 제작기술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된다.

삼연시기에 해당되는 불교사원의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기

³⁰ 錦州市文物考古工作隊, 「義縣尙姑堂石窟調查」, 『遼寧文物學刊』1(1991), pp.104-105.

³¹ 田立坤·李智, 앞의 논문, pp.20-29.

³² 魯寶林等, 「遼寧錦州市前山十六國時期墓葬的清理」, 『考古』1(1998), pp.92-9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編, 『三燕文物精粹』 日本語版(奈良文化財研究所, 2004), p.149.

³³ 中華書局標點本(中華書局, 1996), pp.272-273.

는 어려우나 현존하는 유물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삼연 소조상의 제작기술이 북탑 출토 소조상으로 직접적으로 계승되기는 어렵다고 추정된다.

436년 북연이 북위에 멸망할 즈음 구원병인 고구려군이 먼저 용성에 도착하여 왕궁귀족과 백성 萬戶를 고구려로 이주시켰다.³⁴ 馮弘은 탈출 직전 용성 내의 궁전들을 불 질렀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한다.³⁵ 당시 고구려로 이주된 많은 사람들 속에는 공인집단도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삼연 불상 양식이 이후 북위대에도 계속 이 지역에서 지속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魏書』의 기록을 통해,³⁶ 북위대 이 지역 최고 지방관이었던 인물로는 萬壽, 任城王 雲, 思譽, 安豐王 猛, 慕容契, 崔敬邕 등이 있다. <표 1>을 참고로 하면, 이들 중 북탑이 건립될 당시 조양에 머물렀을 지방장관으로는 安豐王 猛이 가장 유력하다. 그는 문성제의 아들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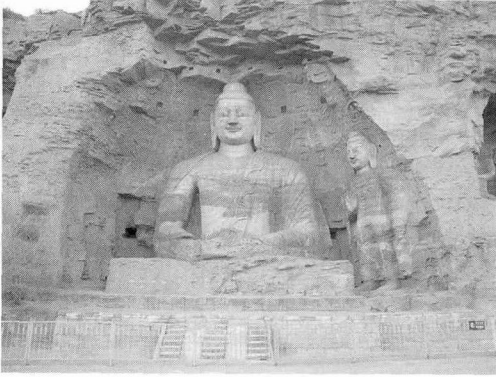
표 1 『魏書』에 기록된 북위대 용성지역 지방관 역임표

	기록내용	년대	직위	출처	왕	출처
萬壽	和平二年秋七月, 萬壽爲樂浪王, 加征北大將軍, 鎮和龍 三年正月癸未, 樂浪王萬壽薨	461-462년	征北大將軍	『魏書』卷五「高宗紀」第五, pp.119-120	景穆帝의 12왕자 중 한 명	『魏書』卷十九上「景穆十二王列傳」第七上, p.441
任城王 雲	和平五年封, 拜使持節, 侍中, 征東大將軍, 和龍鎮都大將	464년	和龍鎮都大將	『魏書』卷十九中「景穆十二王列傳」第七中, p.461	景穆帝의 12왕자 중 한 명	『魏書』卷十九上「景穆十二王列傳」第七上, p.441
思譽	高祖初…出爲使持節, 鎮東大將軍, 和龍鎮都大將, 營州刺史	470년 이후	和龍鎮都大將, 營州刺史	『魏書』卷十九下「景穆十二王列傳」第七下, p.516	景穆帝의 손자	
安豐王 猛	太和五年封, 加侍中. 出爲和龍鎮都大將, 營州刺史	481년	和龍鎮都大將, 營州刺史	『魏書』卷二十「文成五王列傳」第八, p.529	문성제의 아들	『魏書』卷二十「文成五王列傳」第八, p.525
慕容契	太和末, 以功遷太中大夫, 光祿少卿, 營州大中正, 賜爵定陶男. 正始初, 全 征虜將軍, 營州刺史	470-504년	營州大中正	『魏書』卷五十「列傳」第三十八, p.1123		

³⁴ 池培善, 『中世 中國史 研究—慕容燕과 北燕史』(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pp.404-407.

³⁵ “元嘉十三年(436)五月乙卯, 燕王帥龍城見戶東徒, 焚宮殿, 火一旬不滅” 『資治通鑑』卷一百二十三「宋紀」五(中華書局, 1992), p.3862.

³⁶ 『魏書』, 中華書局標點本(中華書局, 1995) 참고.



도 23 雲岡石窟 第20窟 佛像(필자 사진)

풍태후의 이복아들이다. 그러나 위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이 이 지역에서 佛事 활동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북탑 출토 소조상과 보살상의 양식은 태화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태화양식은 요녕지역에서 현존하는 조각양식 중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조각양식이다. 그리고 요녕지역 내에서 이 양식은 태화년간 이후의 조각상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유행하고 있었다. 오호십육국시대 이 지역의 삼연 불상은 현존 수량이 극히 적지만 현존하는 예를 통해 보면 당시 성행한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결국 북탑 출토 소조상은 삼연 불상양식을 직접적으로 계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平城지역 불상과의 비교를 통한 소조상의 조성연대와 양식 연원

북탑 출토 소조상의 넓은 이마와 어깨, 높은 육계, 선정인은 운강석굴 담요오굴에서 형성된 운강 제1기(460-465년) 불상 양식과 유사하다. 특히 북탑 출토 소조상의 우견편단식 佛衣도¹¹는 운강 제19굴, 20굴 본존불상과 흡사하다²³.

439년 북위는 북량을 멸망시킨 후 북량 주민 3萬戶를 평성으로 이주시켰는데, 이 중에는 승려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이후 평성에서 크게 활약하여 평성 불교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³⁷ 景穆帝의 스승이었던 玄高는 이전시기 맥적산과 병령사석굴 일대에서 활약하였으며, 尙書 韓萬德의 門師인 慧崇 역시 涼州 출신이었다. 또한 道人通 師賢은 麗賓國 출신으로 양주에서 활약하였으며 沙門統 曇曜 역시 양주지역에서 평성으로 이주된 승려였다. 당시 평성지역에는 양주지역 승려 이외에도 서역 각국에서 사절단으로 동행한 승려들이 불상, 畫

³⁷ 운강석굴 담요오굴에서 형성된 운강 제1기(460-465년)는 석굴의 타원형 평면, 궁륭형 천정, 大佛이 석굴 전체 면적을 차지함, 三佛, 높은 육계, 넓은 이마와 어깨, 선정인, 통견식, 우견편단식 불의 등으로 대변된다. 제2기(466-494년)에는 쌍굴, 방형 평면, 평평한 천정, 포의박대식 불의 등 전체적으로 중국화가 시작된다(宿白, 「雲岡石窟分期試論」, 『中國石窟寺研究』[文物出版社, 1996], pp.76-84).

像迹 등을 가지고 평성으로 왔다.³⁸

太武帝, 文成帝시기 북위의 수도 평성에는 서역, 양주지역 승려들이 크게 활약하였으며 오호십육국시대 감숙지역, 북위 서역의 불상양식이 운강 제1기 조각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³⁹ 또한 운강 제1기 양식은 제2기 태화년간에도 다소 변화는 있으나 계속해서 성행하게 되어 소위 '太和樣式'을 형성하였다.⁴⁰ 양식적인 면에서 육계는 높으며 우견편단식, 통견식 불의 등을 특징으로 하는 태화양식은 태화년간 제작된 석불, 금동불에 보편적으로 성행하였다.⁴¹

오호십육국시대 병령사 제169굴, 천제산석굴, 금탑사 동·서굴, 북량석탑 등의 불교조각 양식은 쿠차, 호탄 등의 서역 불교조각에 그 기원이 비정되고 있다.⁴² 북위 평성지역 불상양식은 서역적인 특징이 강했던 감숙지역 불상양식만으로도 충분히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북위 평성지역의 불사활동은 『魏書』 卷一百一十四 「釋老志」의 기록으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道武帝 398년의 五級佛圖와 耆闍崛山 및 須彌山殿의 건립, 452년 문성제와 닮은 석상 제작, 五級大寺에 태조 이하 다섯 황제를 위해 석가입상 5구를 주조, 460년 운강석굴 개착, 467년 永寧寺의 七級佛圖 건립, 天宮寺에 금동석가입상 조성, 467-470년 三級石佛圖 건립, 470년 헌문제의 鹿野苑石窟 방문, 476년 효문제의 建明寺 건립, 479년 思遠佛寺 건립이 대표적이다. 특히 효문제 당시 평성에는 사원이 100여 곳이며 승려 수는 2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⁴³ 이는 북위의 수도였던 평성지역의 발달된 불교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북위 평성시기 수도에는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정확한 발굴이 이루어진 사원 유적지로는 方山 思遠佛寺가 유일하다^{도24}. 馮太后가 방산에 건립한 陵園은 현대 동시로부터 동북 25km의 西寺兒梁山(북위대에는 방산으로 명명)에 위치한다. 능원 유적지로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萬年堂, 永固陵, 永固堂, 思遠佛寺, 齋堂, 靈泉池가 분포되어 있다.⁴⁴ 481-484년 조성된 풍태후의 무덤인 영고릉은 490년 풍태후의 죽음으로 이곳에 매장

38 湯用彤, 「漢魏兩晉南北朝佛敎史」, 『中國現代學術經典』(河北教育出版社, 1996), pp.362-373.

39 宿白, 「雲岡石窟分期試論」, 『中國石窟寺研究』(文物出版社, 1996), pp.7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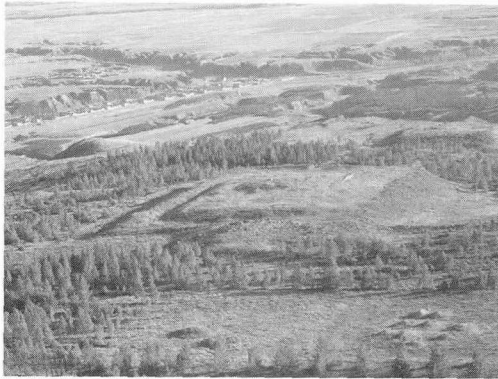
40 미쓰창 외, 양은경 역, 『중국 불교석굴』(다할미디어, 2006), pp.231-255.

41 구노미키, 최성은 역, 『중국의 불교미술』(시공사, 2001), pp.3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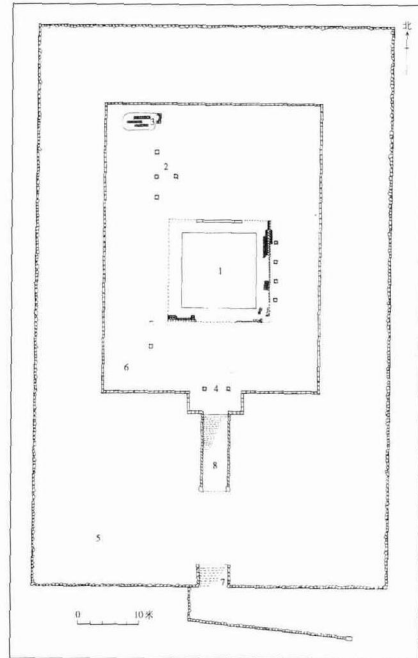
42 양은경, 앞의 논문, pp.155-157.

43 『魏書』, pp.3030-3040.

44 大同市博物館·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大同方山北魏永固陵」, 『文物』7(1978), pp.29-33.



도 24 方山 思遠佛寺 유적지 전경, 사원 전체 동서 폭 57.4m, 남북 방향 길이 87.8m, 山西省 大同市 동북 25km의 西寺兒梁山 소재(필자 사진)



도 25 思遠佛寺 유적지 평면도 (大同市博物館, 『大同北魏方山寺院佛寺遺址發掘報告』, 『文物』4[2007], p.7, 도5)

되었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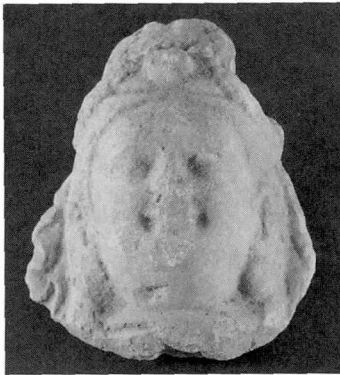
思遠佛寺 유적지는 1970년 지표조사가 시행되었으며,⁴⁶ 1981년 7월 17일-7월 23일, 같은 해 8월 5일-9월 6일 발굴이 실시되었다. 사원은 동서 폭 57.4m, 남북 방향 길이 87.8m의 제1平臺 위쪽에 위치한다^{도25}. 사원이 소재한 제2평대의 면적은 동서 폭 35m, 남북 길이 45.8m이며 山門, 木塔, 佛殿, 僧房 유적지가 확인되었다. 제2층 평대의 동서쪽에서는 기와, 주춧돌, 생활용기, 소조상이 출토되었다.⁴⁷ 제2평대 중앙에는 탑심 실체가 현존한다. 정방형이며 남북 잔존 길이는 12.05m, 동서 잔존 길이는 12.2m, 현존 높이는 1.25m이다.

소조상은 塔基의 동, 서, 남쪽 회랑부분에서 대부분 출토되었으며 승방에서도 1점 수습되었다. 모두 손빛기로 제작되었으며 채색은 대부분 탈락되었다. 잔편 36구가 출토되었다. 잔편의 높이는 5-12cm 정도이며 전체 높이는 50-70cm로 추정된다. 머리, 몸체는 고부조로

⁴⁵ 능원제도에서 무덤과 불교사원이 함께 조영된 것은 풍태후 무덤의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宿白, 「盛樂, 平城一帶的拓拔鮮卑—北魏遺迹—鮮卑遺迹輯錄之二」, 『文物』11(1977), pp.42-43.

⁴⁶ 당시 북경대학교에서 수습한 소조상과 기와 등의 유물은 1995년 일본에서 전시되었다. 出光美術館編, 『北京大學サックラー考古藝術博物館·中國の考古學展—北京大學考古學界發掘成果』圖錄(平凡社, 1995), pp.118-119.

⁴⁷ 大同市博物館, 「大同北魏方山寺院佛寺遺址發掘報告」, 『文物』4(2007), pp.4-9.



도 26 思遠佛寺 유적지 출토
塑造菩薩頭,
높이 13.2cm, 폭 10.7cm,
大同市博物館(大同市博
物館, 앞의 논문, p.19,
도41)

도 27 北塔 출토 塑造菩薩頭,
塑造, 높이 5cm 추정,
遼寧省博物館
(필자 사진)

조각되었으며 뒷면 혹은 측면은 평평하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벽면에 걸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⁴⁸

출토된 소조상의 종류로는 보살상 도 26, 비천상, 獸面 장식물, 연화 장식물이 있으며 이중 보살상의 출토 수량이 가장 많다. 보살상 중 머리에 보관을 쓰거나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원형 구슬들을 엮어 장식한 예도 있다. 이러한 보살상은 북탑 출토 소조보살상과 동일하다 도 27.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며 얼굴이 둥글고 풍만한 모습 역시 두 곳이 흡사하다. 한 손을 위로 들고 연봉우리 혹은 옷자락을 쥐고 있는 양식 역시 두 곳이 유사하다. 이로써 북탑 출토 소조보살상의 전체적인 양식은 사원불사 출토 소조보살상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사원불사 출토 소조상의 양식은 평성지역에서 제작된 도용과도 비교될 수 있다. 477년의 宋紹祖墓,⁴⁹ 484년 축조된 司馬金龍墓,⁵⁰ 下深井 북위묘⁵¹ 등에서 출토된 도용은 얼굴이 둥글고 풍만하다. 도용 인물상의 전체적인 얼굴 형태는 사원불사 출토 소조상과 흡사하다.

평성 사원불사의 소조불과 조양 북탑 출토 소조불은 각각 479-490년, 484-490년이라는 조성연대의 근접성과 풍태후의 발원으로 이루어진 공통점이 있다. 조양 북탑은 文明太后 馮氏가 영조한 思燕佛圖로 최초 창건되었다.⁵² '思燕佛圖'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 탑은

⁴⁸ 大同市博物館, 앞의 논문, pp.15-21.

⁴⁹ 山西省考古研究所·大同市考古研究所, 「大同市北魏宋紹祖墓發掘簡報」, 『文物』 7(2001), pp.19-39.

⁵⁰ 山西省大同市博物館·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山西大同石家寨北魏司馬金龍墓」, 『文物』 3(1972), pp.20-33.

⁵¹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下深井北魏墓發掘簡報」, 『文物』 6(2004), pp.29-34.

⁵² 『魏書』 卷一百一十四 「釋老志」의 기록 “凡宮塔制度, 猶依天竺舊狀而重構之, 從一級至三, 五, 七, 九. 世人相承, 謂之「浮圖」, 或云「佛圖」”(〔中華書局, 1995〕, p.3029)의 내용으로 판단하면 동한대에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스투파(탑)의 명칭은 浮圖 혹은 佛圖로 명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연나라를 그리워하여 고향에 건립하였던 것이다.

문명태후는 북연의 마지막 황제 馮弘의 손녀딸이며 442년 장안에서 출생하였다.⁵³ 456년 황후가 되었으며, 465년 남편 문성제의 죽은 이후부터 490년 자신의 죽음까지 북위 정권을 장악한 여인이었다.⁵⁴ 황후로 등극한 다음 해인 457년 10월 東巡 당시 太宰 常英으로 하여금 遼西 黃山에 행궁을 건립하게 하였다. 458년에도 요서 황산궁에 행차하기도 하였다.⁵⁵ 요서는 삼연의 본거지이며 문성제가 북연 황손이었던 문명황후를 위해 이곳으로 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魏書』 卷十三 「列傳」 第一 文成文明皇后馮氏傳의 기록 “太后立文宣王廟於長安, 又立思燕佛圖於龍城, 皆刊石立碑”⁵⁶처럼 그녀가 龍城(현 조양시)에 사연불도를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용성은 342년 전연이 이곳을 수도로 정한 이후 북연이 멸망한 436년까지 명명된 지명이다. 북위 대에는 龍城, 和龍城 혹은 營州로 불렸다.⁵⁷ 문명태후는 479-484년 방산에 자신의 무덤과 사원을 건립하였으며 484년부터 그녀가 죽은 490년까지의 시기에는 사연불도를 건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용성의 內城 유적이 발굴 중이다. 내성은 북탑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00m에 위치하며 대형 토성, 돌이 깔린 길, 벽돌이 깔린 도로, 성벽이 확인되었다.⁵⁸ 이로써 북위 사연불도는 옛 삼연 궁전 터에 건립되었으며 궁전 터에 존재했던 삼연대 주춧돌을 옮겨다 사연불도의 주춧돌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아주 짙다.

이러한 조성배경을 대변하듯 두 지역 목탑에서 출토된 소조불 양식은 동일하다. 결국 조양 북탑 소조상의 양식 연원은 당시 수도인 평성지역 소조상에 있다.

북위 평성지역 불상양식이 용성지역으로 전파된 것에 대해 순차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평성에서 용성에 도달하는 교통노선이었던 上谷路, 赤城路 선상에 분포한 불교 유적, 유물을 통해 조각양식이 평성 → 密雲(하북성) → 平剛(현 요녕성 凌源縣) → 용성의

53 『魏書』 卷十三 「列傳」 第一 文成文明皇后馮氏傳(中華書局, 1995), p.328.

54 金聖熙, 「北魏 文明太后的 時代—政治勢力間的 對立樣相을 中心으로」, 『魏晉隋唐史研究』 7(魏晉隋唐史學會, 1999), pp.27-58.

55 “魏主將東巡, 冬, 十月, 詔太宰常英起行宮於遼西黃山. 魏收地形志, 遼西郡肥如縣有黃山”, “三年(458)正月乙酉, 魏主如廣甯溫泉宮, 遂巡平州, 魏平州之地, 止遼西, 北平二郡. 庚午, 至黃山宮……” 『資治通鑑』 卷一百二十八 「宋紀」 十(中華書局, 1992), p.4031, 4033.

56 『魏書』, p.329.

57 田立坤, 「朝陽史地考略」, 『慶祝張忠培先生七十歲論文集』(科學出版社, 2004), pp.571-572.

58 黃斌·黃瑞, 『走進東北古國』(遠方出版社, 2006), pp.218-222.

로 전파된다고 여기고 있다.⁵⁹ 요녕성 경내에서 발견되는 북위대 석불, 석굴의 경우 이러한 전파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사연불도 소조불의 경우 풍태후의 직접 발원, 평성지역 불교사원 출토 소조상 양식과의 공통점, 복연의 수도 내 공인집단의 공백 등으로 미루어 평성의 공인들이 직접 용성에 파견되어 조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두 곳에서 출토된 기와에서도 확인된다. 조양 북탑에서 출토된 기와는 대부분 ‘井’자형 규격을 중심으로 “萬”, “貴康”, “萬歲富貴” 字가 새겨져 있다. 조양에서는 1993년 薊州路 유적지에서 “萬”, “歲”, “富” 字의 기와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조양에서 출토된 북위대 문자 기와들은 문자내용, ‘井’자형 규격, 네 모서리와 중앙의 圓孔 등 평성 사원불사 출토 기와와 동일하다.⁶⁰ 동시기 평성의 북위 古城유적지, 雲岡山 출토 문자 기와는 문자내용과 원유, 테두리 수량 면에서 사원불사 출토 기와와는 다르다. 기와를 통해서도 두 곳에서의 흙을 소재로 한 기와, 소조상은 동일한 공인이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높게 한다.

3. 내몽고, 낙양지역 불상과의 비교를 통한 소조상의 조성연대와 양식 연원

기타 다른 지역 소조상과의 연원관계는 어떠한 양상인지 간략하게 서술하겠다. 1979-1980년 內蒙古 包頭市 固陽縣의 城圍圖에서 古城 유적지가 발굴되었다. 이 유적지 중 T2 지점에서 사원 유적지가 확인되었으며 기와, 소조상이 출토되었다. 사원 유적지 서쪽의 基座 바깥쪽 흙더미에서 소조상 잔편 36구가 수습되었다.⁶¹ 소조상이 출토된 이 지점은 역시 목탑 유적지로 간주되고 있다.⁶²

소조상에는 홍색, 흑색, 백색의 채색이 가해져 있으며 불상, 보살상, 제자상, 비천상이 출토되었다도²⁸. 얼굴은 둥글고 풍만하다. 보살상은 보관을 쓰고 있거나 머리카락을 위로 높게 묶고 있다. 특히 T2:4의 보살상은 머리 형태, 얼굴, 귀걸이, 둥근 옷깃, 목에서부터 V자형으로 중복된 옷주름선, 오른손을 위로 들어 연꽃 봉우리를 쥐거나 경책과 유사한 물건을 들

⁵⁹ 劉建華, 「遼寧義縣萬佛堂北魏石窟分期研究」, 『考古學報』 2(2001), pp.180-183.

⁶⁰ 李新全은 「三燕瓦當考」, 『遼海文物學刊』 1(1996), pp.12-15에서 조양 북탑 출토 기와, 영주로 출토 기와 등이 평성지역 북위 기와보다 연대가 빠르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방산 사원불사 유적지가 발굴되기 이전이었기에 당시까지 발굴된 평성지역 유적지에서 출토된 기와는 문자내용, 규격, 전체형태에서 조양 북탑 출토 기와보다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⁶¹ 內蒙古文物工作隊·包頭市文物管理所, 「內蒙古固陽靈淖城圍圖北魏古城遺址調查」, 『考古』 2(1984), pp.145-152.

⁶² 宿白, 「東漢魏晉南北朝佛寺布局初探」, 『慶祝鄧廣銘教授九十華誕論文集』(河北教育出版社, 1997), p.47, 注16.



도 28 內蒙古 靈淖 城團圖 古城 유적지 T2지
점 출토 塑造像, 塑造,
높이 5.9-12cm, 너비 4.1-11.5cm,
包頭市文管所(內蒙古文物工作隊·包
頭市文物管理所, 『內蒙古白靈淖城團圖
北魏古城遺址調查』, 『考古』2(1984),
p.150, 도7)

고 있다. 이러한 보살상은 방산 사원불사 출토 보살상, 조양 북탑 출토 보살상과 동일하다.

또한 城團圖 출토 소조불상의 선정인, 둥근 옷깃, 목에서부터 중복되어 늘어뜨려진 옷 주름선, 두 팔을 따라 흘러내린 주름진 옷자락 역시 북탑 출토 소조상과 유사하다.

이 유적지는 북위대 六鎮 중 하나였던 懷朔鎮의 소재지이며 황제들의 북방 순행 시 중요시 되었던 곳이다.⁶³ 이 유적지 자체는 북위 평성시기에 조성되었으며, 이 유적지에서 출토된 소조상 역시 조각양식 등으로 미루어 운강 제1·2기에 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내몽고의 북위묘에서는 흙을 이용하여 만든 도용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⁶⁴ 이 자료는 이 지역에서의 소조불상 제작의 성행을 뒷받침해줄 뿐 아니라 평성지역 도용과의 관련성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결국 내몽고 포두시 출토 소조상은 북탑 출토 소조상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평성지역 불상양식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494년 북위의 천도 이후 진행된 불사활동 중 대표적인 예는 永寧寺가 있다. 胡太后 발원으로 516년부터 건립된 영녕사 9층 목탑은 534년 화재로 소실될 때까지 낙양 최대의 탑이었다. 1979년부터 실시된 발굴을 통해 불전, 목탑, 문 등의 유적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塔基 주위의 지층에서 소조상이 출토되었는데 대략 1560여 구이다.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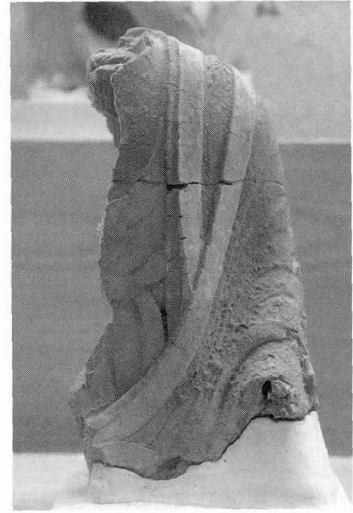
⁶³ 內蒙古文物工作隊·包頭市文物管理所, 앞의 논문, pp.151; 周一良, 「北魏鎮戍制度考及續考」, 『魏晉南北朝史論集』(北京大學出版社, 1997), pp.215-238.

⁶⁴ 郭素新, 「內蒙古呼和浩特市北魏墓」, 『文物』5(1977), pp.38-41.

⁶⁵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北魏洛陽永寧寺—1979-1994年考古發掘報告』(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pp.1-136; 段鵬琦, 「漢魏洛陽城」,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考古博物館洛陽分館』(文化藝術出版社, 1998),

소조상은 복원 높이에 근거하여 대형(3m), 중형(1-1.4m), 소형(0.5m 내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형에 속하는 예가 가장 많다. 소조상의 종류로는 불상, 보살상, 제자상, 승려상, 예불도 인물상, 불전·경변내용과 관련된 인물상, 동물상, 비천, 역사상, 나무, 연꽃 등이 있다.⁶⁶

영녕사 출토 소조상은 수골청상, 포의박대식 가사, 공양자상의 보관과 머리모양 등 운강 3기, 즉 494년 이후의 조각양식을 보인다²⁹. 영녕사 출토 소조상은 북탑 출토 소조상과는 양식이 다르며, 조성시기 역시 늦다. 결국 북탑 출토 소조상의 양식원류로서 영녕사 출토 소조상은 부적합하며 양식적으로도 관련이 없다.



도 29 永寧寺 출토 塑造佛像 잔편, 塑造, 河南省 洛陽市 동쪽 위치,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考古博物館洛陽分館(필자 사진)

IV. 봉안 장소와 원형 추정

사연불도의 소조상은 현 북탑의 남쪽에서 출토되었다. 사연불도는 소실된 이후 폐기된 채 오늘날까지 온 것이 아니라 수, 당, 요대에 각각 중수를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 창건 당시 목탑의 규모와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소조상은 현 북탑의 주춧돌이 배열된 탑 기단부에서 출토된 것이 아니라 탑의 남쪽 13m의 지층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소조상들은 원래 어느 장소에 봉안된 것이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조시대 사원 유적지인 방산 사원불사 유적지, 내몽고 사원 유적지, 영녕사 유적지, 鄴城 사원 유적지^{도30}에서 발견된 소조상은 모두 목탑지에서 출토되었다. 사원불사 유적지의 소조상 중 1구는 승방지에서 출토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목탑지 주춧돌과 탑심체 사이 혹은 주춧돌 바깥쪽 공간에서 출토되었다.⁶⁷ 이를 통해 목탑지 인근에서 출토되는 소조상은 목

p.59.

⁶⁶ 錢國祥, 「北魏洛陽永寧寺塑像의 初步研究」, 『中原文物』 1(2005), pp.76-85. 이 논문은 龍門石窟研究院·龍門博物館, 『龍門博物館藏品—佛教藝術卷』(大象出版社, 2005), pp.80-86에 재수록됨.

⁶⁷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工作隊, 「北魏永寧寺塔基發掘簡報」, 『考古』 3(1981), p.224; 內蒙古文物工作隊·包頭市文物管理所, 「內蒙古白靈淖城圍圖北魏古城遺址調查」, 『考古』 2(1984), p.147; 朱巖石, 「鄴城遺址東



도 30 河北省 鄴南城 寺院 塔基 유적
(朱巖石, 『鄴城遺址東魏北齊佛寺
塔基遺蹟』, 『2002中國重要考古發
現』[文物出版社, 2003], p.98.)

탑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사실 남북조시대 불교사원 내 건축물들의 배치 면에서 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⁶⁸ 사원불사, 영녕사, 업성 사원 유적지에서 목탑은 사원의 중축선상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하며 규모 역시 가장 크다. 남북조시대에는 불교도들의 예배대상이 탑이었던 것이다.

목탑에서 출토된 소조상들은 목탑 내부에 봉안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문헌기록,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

『魏書』卷四下「世祖紀」第四下的 기록 “太平眞君七年(446)夏四月戊子, 鄴城毀五層佛圖, 於泥像中得玉璽二,”⁶⁹ 즉 446년 업성의 탑이 소실되었는데 소조상 속에서 옥새 2개를 얻었다는 내용이다. 『法苑珠林』卷三十九「伽藍篇·感應緣」에는 “江陵 長沙寺의 탑은 유송 譙王 義季가 조성하였으며 탑 안쪽에 忉利天工이 만든 素像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⁷⁰

위의 문헌기록을 통해서 목탑과 소조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목탑 내부에 소조상이 봉안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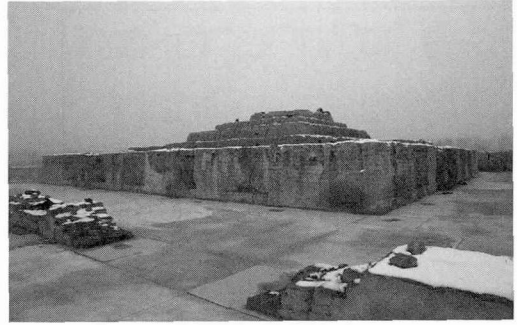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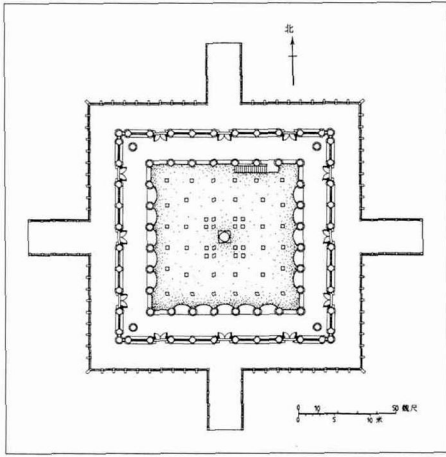
고고학적으로는 영녕사 목탑의 발굴을 통해서 당시 소조상의 목탑 내 봉안사실과 奉安原形을 정확하게 추정해볼 수 있다. 목탑 내부의 28개 주춧돌을 중심으로 夯土 탑심체의 동, 서, 남쪽에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든 벽면이 각각 5개 있다. 이 벽면은 안쪽으로 곡선을 이루며

魏北齊佛寺塔基遺蹟』, 『2002中國重要考古發現』(文物出版社, 2003), p.9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河北省文物研究所, 『河北臨漳縣鄴城遺址東魏北齊佛寺塔基的發現與發掘』, 『考古』10(2003), pp.3-6; 大同市博物館, 『大同北魏方山寺院佛寺遺址發掘報告』, 『文物』4(2007), pp.8-9.

⁶⁸ 劉敦楨, 『中國古代建築史』(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1), pp.83-84.

⁶⁹ 『魏書』, p.101.

⁷⁰ “長沙寺……殿前塔, 宋譙王義季所造. 塔內素像, 忉利天工所造”(〔上海古籍出版社, 1995〕, p.309). 구두점은 필자가 임의로 찍은 것임.



도 32 永寧寺 木塔 내부 佛龕 복원 전경(필자 사진)

도 31 永寧寺 탑 평면 복원도 (鍾曉青, 『北魏洛陽永寧寺塔復原探討』, 『文物』 5(1998), p.56, 도2)

벽면 좌·우측의 아래 면에 주춧돌의 흔적이 있다. 동, 서, 남쪽의 5개의 벽감은 佛龕이며 이곳에 소조상을 안치하였던 것이다. 북쪽 탑심체에는 탑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시설이 있다.⁷¹ 주춧돌과 주춧돌 사이의 너비는 3m 정도 이다^{도31,72}

현재 영녕사를 방문하면 이 불감을 복원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도32}. 결국 동, 서, 남쪽에 설치된 불감은 목탑 내부의 제1층이며 흠을 쌓아 축조된 탑심체의 외부에 해당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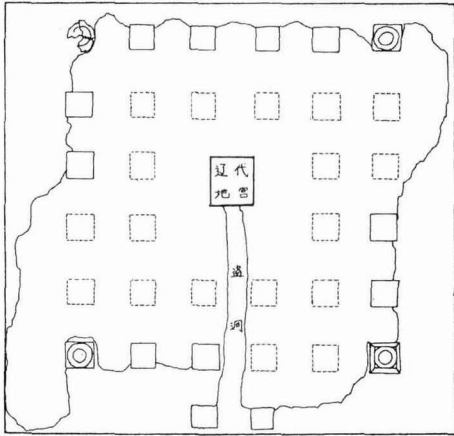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은 방산 사원불사의 목탑 내부에서도 확인된다. 현존하는 향토 탑심체의 제1층 외부 벽면에는 벽돌이 일직선으로 쌓여 있으며 바깥쪽 주춧돌과의 사이 지면에도 벽돌이 소량 깔려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소조상 중에는 벽면에 붙여진 채 출토된 잔편도 존재한다. 이는 탑심체 외부 흠벽면에 붙여진 소조상이었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원불사 목탑 내부의 북쪽 탑심체에서는 영녕사와 동일하게 돌로 만든 계단이 확인되었다.⁷³ 결국 사원불사의 목탑 역시 탑 내부 제1층 탑심체의 북쪽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었으며 나머지 동, 서, 남쪽 탑심체에는 소조상이 붙여져 예배대상으로 활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현 북탑의 탑기 내부 주춧돌 내부의 흠은 북위대 탑심체의 향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⁷¹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北魏洛陽永寧寺—1979—1994年考古發掘報告』(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pp.17-19.

⁷² 錢國祥, 앞의 논문, p.83.

⁷³ 大同市博物館, 앞의 논문, pp.8-21.



도 33 思燕佛圖 주춧돌 평면도
(朝陽北塔考古勘察隊, 앞의 논문, p.30, 도2)

그리고 현존하는 주춧돌들은 당시 탑심체 내부와 탑심체 외부 벽면의 불감 좌우에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³³. 그렇다면 현 북탑 남쪽에서 출토된 북위 소조상은 목탑 내 불감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목탑 내부에 축조된 항토 탑심체는 현재까지 발굴이 이루어진 북위-북제 목탑에서는 모두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은 운강석굴, 공현석굴 등 북조시기 조영된 중심주굴의 방형탑에서도 실제 목탑의 내부와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조시대 북조와 남조에서 목탑이 성행되게 건립된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두 곳은 목탑을 건립하는 방식에서 차이점도 존재하였다. 북조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목탑 내부 중심부분에 土臺가 설치되며, 그 외부에는 대형의 목조건축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남조의 목탑은 『高僧傳』卷十三 興福 「晉京師安樂寺釋慧受」의 기록,⁷⁴ 『高僧傳』卷十三 興福 「晉并州竺慧達」의 내용에 근거하여⁷⁵ 목탑을 조성할 당시 우선 찰주를 먼저 세운 이후 중심 찰주에 의지하여 층층이 쌓아 올라가거나 혹은 심지어 1층을 먼저 건립한 이후 층을 쌓아 올라가는 방식을 취함을 알 수 있다. 남조의 목탑은 순수하게 나무로 구조된 형식이 많으며 이러한 결구방식은 일본 飛鳥, 奈良시대 목탑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⁷⁶

조양 북탑 출토 소조상이 목탑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떠한 형태로 봉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탑, 영녕사 목탑의 예, 석굴자료를 비교자료로 활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⁷⁴ “釋慧受, 安樂人. 晉興寧中(363-365), 來遊京師……嘗行過王坦之園, 夜輒夢於園中立寺, 如此數過……初立一小屋, 每夕復夢見一青龍從南方來, 化爲刹柱. 受將沙彌試至新亭江尋覓, 乃見一長木隨流來下……於是雇人牽上, 豎立爲刹, 架以一” 慧皎撰·湯用彤校注, 『高僧傳』(中華書局, 1996), pp.481-482.

⁷⁵ “釋慧達, 姓劉, 本名薩河, 并州西河離石人……晉寧康中(373-375), 至京師. 先是簡文皇帝於長干寺造三層塔……乃於舊塔之西, 更豎一刹, 施安舍利. 晉太元十六年(391), 孝武更加爲三層” 『高僧傳』(中華書局, 1996), pp.477-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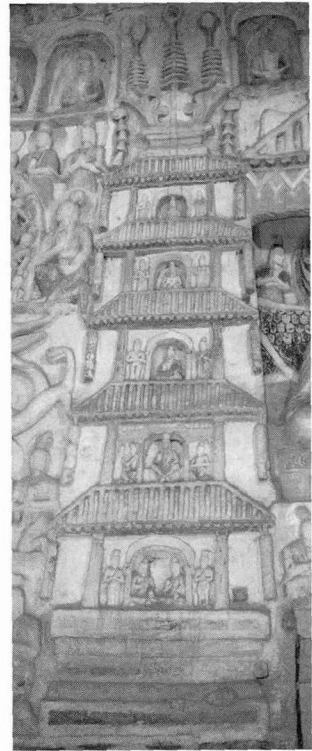
⁷⁶ 鍾曉青, 「北魏洛陽永寧寺塔復原探討」, 『文物』5(1998), pp.57-58.

영녕사는 목탑 내부의 1층 탑심체 벽면의 외부 동, 서, 남쪽에 각각 5개의 불감을 만든 이후 이 불감 속에 소조상을 부착하였다. 불감의 깊이는 40cm이며 불감 자체의 너비는 2-2.5m로 추정된다.⁷⁷

중국에서 탑심체의 외부 벽면에 불감을 파지 않고서 방형 탑심주의 벽면에 직접 소조상을 붙인 경우도 있다. 이 예는 산둥성 濟南市 神通寺 四門塔 내부의 사면 석불이 대표적이다. 1973년 탑 정상부에서 “隋大業七年造”라는 명문의 발견과 불상양식으로 인해 이 불상은 수대에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⁷⁸ 단층 석탑, 내부에 안치된 석불상은 비록 수대 작품이지만 탑 내부의 불상 봉안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북탑에서 출토된 소조상은 당시 사연불도 내부의 탑심체 외부 벽면에 부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연불도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현 臺灣國立歷史博物館 소장 466년명 9층 석탑,⁷⁹ 운강석굴 제1굴 中心塔柱, 제6굴 남벽 부조 석탑도³⁴, 제11굴 남벽 상층 동부의 부조 석탑 등은 모두 높은 기단 위에 불탑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네 면에는 모두 원공형 혹은 천막형 불감이 파여져 있으며 이 불감 속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위에서의 운강석굴, 현존 소석탑의 예와 동일하게 북탑에서 출토된 소조상 역시 탑심체 외부 벽면에 불감을 판 후 이 불감 속에 소조상을 부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은 불감 양측에 위치하였을 것이며, 사자얼굴의 소조상은 운강 제7



도 34 雲岡石窟 第6窟 南壁 中層 浮彫石塔 (雲岡石窟文物保管所, 『中國石窟·雲岡石窟』[文物出版社, 1991], 도113)

⁷⁷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北魏洛陽永寧寺—1979-1994年考古發掘報告』(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p.18.

⁷⁸ 陳東梅, 「四門塔與隋文帝」, 『四門塔阿閼佛與山東佛像藝術研究』(中國文史出版社, 2005), pp.45-46. 『濟南金石志』의 기록에 의하면 탑 내부에 남면 불좌 아래, 사면불상 사이사이의 석조각상의 대좌 아래에 각각 동위, 당대에 조성했다는 명문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명문들은 현존하지 않는다.

⁷⁹ 재질은 사암이며 본래 山西省 朔縣 崇福寺에 소장되어 있었다. 현존 높이 153.1cm이다. 金申, 『中國歷代紀年佛像圖典』(文物出版社, 1995), p.439; 黃永川, 『中國佛雕藝術』(國立歷史博物館, 2002), p.31.

굴 후실 북벽 상층의 불감과 같이 천막을 묶는 곳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비천상은 불감 안쪽과 바깥쪽의 경계 부분에 위치하였을 것이며 연화화생상은 조각상과 조각상 사이에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운강석굴에 현존하는 각종 탑은 모두 120여 기 정도이며 대부분 방형의 누각식 탑이다.⁸⁰ 이러한 탑 형식은 漢代 누각식 건축물의 영향으로 형성된 중국식 특징이며 오호십육국 시대 감숙성 천제산석굴, 금탑사석굴에서부터 실제적인 예가 확인된다. 현존하는 오호십육국시대 塔墓窟은 모두 방형의 多層이며 북위 운강석굴의 탑묘굴 역시 방형 다층이다. 그러나 천도 이후 낙양지역의 공현석굴에서는 방형 단층이 출현하며 북제 향당산석굴 역시 단층을 이루고 있다.⁸¹ 결국 사연불도가 건립될 당시의 지상 목탑은 방형의 다층을 이룬 예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續高僧傳』卷二十七六「隋京師淨影寺釋竇安傳」의 기록 “竇安……開皇七年，慕義入關住淨影寺……仁壽二年，奉勅置塔於營州梵幢寺。卽黃龍城也，舊有十七級浮圖擁在其內。安置舍利……”을 통해⁸² 602년 장안 정영사에 거주하던 보안을 영주, 즉 황룡성(현 조양시) 법당사로 사리를 봉송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안이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는 이전시기 17층탑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續高僧傳』에서는 북위 사연불도의 층수가 17층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山崎宏은 영주란 지명을 호남성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보안이 파견된 법당사가 호남성에 소재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추론이다.⁸³

이처럼 기록에서의 17층탑의 존재와는 달리 비교 대상이 되는 현존 운강석굴의 탑, 기타 북위 소탑, 『魏書·釋老志』에서 언급한 탑들은 모두 3, 5, 7, 9층이며 그 이상의 층수는 거의 없다. 낙양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洛陽伽藍記』에 기록된 탑 역시 대부분 목탑이며 3, 5, 7, 9층이다. 당시 남조 역시 12층 목탑을 조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侯景의 亂으로 완성을 보지 못했다는 기록으로 판단하면,⁸⁴ 남북조시대 10층 이상의 탑을 건립하는 것은 힘들었다고 생각된다. 혹여 『續高僧傳』의 기록을 굳이 신빙한다면 목탑에서의 암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관으로 보는 층수와 목탑 내부에 실제 걸구된 층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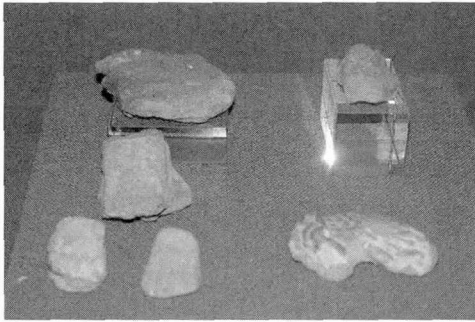
80 楊超傑·嚴輝, 『龍門石窟雕刻粹編—佛塔』(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2), pp.47-48.

81 마쓰창외, 양은경 역, 앞의 책, pp.88-40.

82 『大正新修大藏經』, p.674 上,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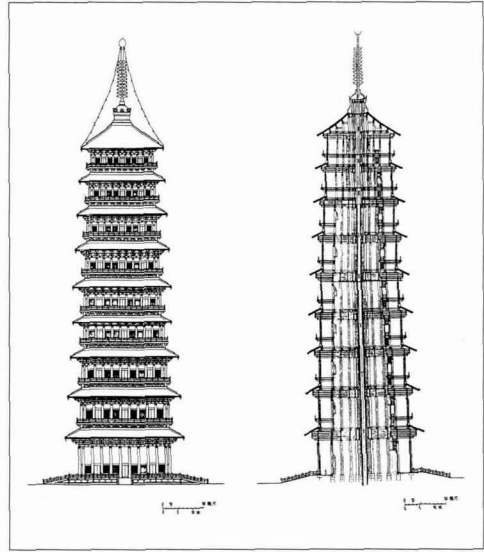
83 山崎宏, 『支那中世佛教の展開』(清水書店, 1971), p.336의 仁壽年間建立舍利塔分布表.

84 이 기록은 “(梁武帝時)起寺十餘年……卽更構造而作十二層塔，未就而侯景作亂” 『建康實錄』卷一七「輿地志」에 출처하며 필자는 鍾曉青, 앞의 논문, p.64. 註18을 참고하였음.



도 35 北塔 출토 塑造像의 손·발 잔편, 塑造,
높이 3-6cm 추정, 朝陽市北塔博物館(필자 사진)

도 36 永寧寺 木塔 복원도
(鍾曉青, 앞의 논문, p.61, 도7, 8)



결국 사연불도 목탑은 내부에 향토 탑심체를 1층에서부터 꼭대기 층까지 모두 쌓아 올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조상 역시 목탑 내부의 1층에서부터 꼭대기 층까지 모두 봉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탑박물관에 소장된 손, 발 등 크기가 다소 큰 소조상 잔편은 1층 혹은 목탑의 아래층에 부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35}. 또한 현재 요녕성박물관에 소장된 불상, 보살상은 전체 높이가 25-30cm의 작은 크기의 소조상이므로 목탑의 위층 혹은 아래층의 불감 주위에 부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남북조시대 공양자들이 예배대상으로 중요시 한 목탑은 목탑 외관이 아니라 내부에 봉안된 소조상이었다^{도36}. 다시 말해 예배자들은 목탑 내부로 들어가 중앙에 설치된 방형 향토 탑심체의 동, 서, 남쪽에 부착된 소조상을 예배하였던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요녕성 조양시 북탑 출토 소조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제II장에서는 북탑의 복원과정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발굴과 조사를 통한 유물들을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립 내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현재의 북탑 탑심체는 당대 건립된 것이며 외관상의 벽돌들과 조각들은 요대에 중수되었다. 내부의 주춧돌은 北燕

궁궐터에서 가지고 온 것이며 북탑은 북위 풍태후의 발원에 의해 思燕佛圖로 창건되었다.

제III장에서는 북탑 남쪽의 퇴적층에서 출토된 소조상의 조성연대와 양식 연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탑 출토 소조상과 보살상을 중심으로 요녕지역, 평성지역, 내몽고, 낙양지역의 소조상과 비교작업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탑 출토 소조상은 북위 太和年間 조각양식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요녕지역 삼연 조각양식과는 직접적인 연원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북탑 출토 소조상은 당시 수도였던 평성 불상 양식과 영향관계가 보이는데, 특히 方山 思遠佛寺 목탑지 출토 소조상과 아주 유사하다. 조각수법, 조각양식, 채색 등 두 지역 소조상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듯 북탑 출토 소조상의 연원이 평성 사원불사 소조상에 있었던 배경으로는 두 곳의 공양발원자의 동일성을 지적하였다. 당시 북위 정권을 장악했던 풍태후가 자신의 무덤 부근과 자신의 고향에 각각 목탑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당시 최고의 장인집단을 고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두 곳에 참여한 공인이 동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IV장에서는 북탑 출토 소조상의 봉안 장소와 그 原形에 대해 추정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현재까지 발굴이 이루어진 남북조시대 불교 사원 유적지로는 산서성 사원불사, 내몽고 사원 유적지, 하남성 영녕사, 하북성 업성 사원 유적지가 있다. 이 사원 유적지들의 발굴은 대부분 사원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목탑에 치중되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남북조시대에는 목탑이 가장 중요한 예배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원 건축물 중 규모가 가장 컸다. 당시 공양자들이 예배한 목탑의 대상은 목탑 외관이 아닌 목탑 내부에 봉안된 소조상이었다.

북탑 출토 소조상은 목탑 내부에 설치된 향토 탑심체의 동, 서, 남쪽 불감 속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향토 탑심체는 1층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설치되었으며 그곳에 봉안된 소조상 역시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부착되었을 것이다. 현재 북탑에서 출토된 소조상의 전체 높이는 30cm가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예들이기 때문에 목탑 내부의 1층이 아닌 상부 층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추정하였다.

표 2 현재까지 발굴이 이루어진 남북조시대 목탑의 현황과 소조불

	塔名					
	山西省 思遠佛寺	遼寧省 思燕佛圖	內蒙古 靈淖 城圍圖 古城유적지	河南省 永寧寺	河北省 鄴南城 寺院 塔基	
년대	북위 평성시기	북위 평성시기	북위 평성시기	북위 낙양시기	동위-북제	
위치	산서성 대동시 북쪽 25km	요녕성 조양시	내몽고 포두시 고양현	하남성 낙양시 동쪽 12km	하북성 한단시 입장현	
평면	정방형	정방형	불명확	정방형		
목탑면적 (가로×세로: m)	18.2×18.2		불명확	30×30		
기단 (가로×세로×높이: m)	35×45.8×2.5	16×16×8(추정)	불명확	38.2×38.2×2.2		
주춧돌	겹수	1겹	2겹(?)	불명확	5겹	
	한 면의 수량	6개: 3.3m	6개(외부?)주춧돌과 주춧돌 사이: 2.76m 4개(내부?)사이		4개(가장 안쪽) 4개(두 번째) 6개(세 번째) 8개(네 번째) 10개(가장 가장 자리): 3m	4개(두 번째) 6개(가장 가장 자리): 4m
	한 면의 칸수	5칸	5(외부)		9(가장 외부)	5(가장 외부)
	형태	方形 覆盆式	方形 覆斗式, 方形 覆盆式		소실	方形 覆盆式
	크기(길이×높이: cm)	61×33	123×53(깊이) (方形 覆斗式) 124×52		120×60(방方形)	120×?
현존 夯土 탑심 (가로×세로: m)	12.2×12.05		불명확	19.8×19.8	30×30	
지궁여부	확인 안 됨	요대 지궁		확인(도굴)		
1층 불감수	불명확	불명확		5칸	불명확	
소조불	출토장소	탑 回廊 네 면(제 2층 平臺 위쪽), 佛殿, 僧房	현존 탑의 남쪽 10m		탑 기단의 주위	
	출토수량 (軀)	16	불명확 (30여 구?)		2000여 구	
	종류	보살상, 비천상, 연화장식물, 獸面 장식물	불상, 보살상, 비천상, 연화화생, 기둥, 獸面장식물		불상, 보살상, 제자상, 승려상, 공양자상, 비천, 역사상, 동물상, 수목, 연화	

	조각수법	손빛기	손빛기,(위주) 주 물들		손빛기,(위주) 주 물들	
	기타 출토 유물	기와(萬歲富貴字, □流연□□字, □賢永□字, 연화 문, 연화화생, 獸 面筒瓦, 板瓦), 磚, 石手秀, 토기, 방형 石刻, 獸面 石刻-북위대	기와(萬歲字, 富 康字, 연화문), 석 불상, 무사상, 천 궁, 지궁유물		벽화잔편, 磚, 기 와(獸面, 연화문, 연화화생, 인동당 초문, 구름문), 치 미, 石, 석조각, 철제 건축부재, 토기, 자기, 동기, 화폐, 옥, 골기, 구슬	
	발굴년도	1986년	1981년 7월 17일- 23일, 1981년 8월 5일-9월 6일		1979-1994년	2002년 10월-12월
	출처	大同市博物館, 「大同北魏方山寺 院佛寺遺址發掘 報告」, 『文物』 4(2007), pp.4-9	張劍波·王晶 辰·董高, 「朝陽 北塔的結構勘察 與修建歷史」, 『文 物』 7(1992), p.35	內蒙古文物工作 隊·包頭市文物 管理所, 「內蒙古 白靈淖城圍圖 北 魏古城遺址調查」, 『考古』 2(1984), pp.145-152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北 魏洛陽永寧寺— 1979-1994年考古 發掘報告』(中國大 百科全書出版社, 1996), pp.1-136	中國社會科學院考 古研究所·河北省 文物研究所, 「河 北臨漳縣鄴城遺址 東魏北齊佛寺塔基 的發現與發掘」, 『考古』 10(2003), pp.3-6

* 주제어(key words) ___ 朝陽 北塔(Chaoyang Northern Tower), 木塔(Wooden Pagoda), 塑造佛(stature), 北魏
(Northern Wei Dynasty)

국문초록

요녕성 조양시 북탑 출토 소조상에 대해 조사 현황과 출토 유물, 소조상의 조성연대, 봉안 장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탑의 복원과정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발굴과 조사를 통한 유물들을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립 내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현재의 북탑 탑심체는 唐代 건립된 것이며 외관상의 벽돌들과 조각들은 遼代에 중수되었다. 내부의 주춧돌은 北燕 궁궐터에서 가지고 온 것이며 북탑은 북위 풍태후의 발원에 의해 思燕佛圖로 창건되었다.

북탑 남쪽의 퇴적층에서 출토된 소조상의 조성연대와 양식 연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탑 출토 소조상과 보살상을 중심으로 요녕지역, 평성지역, 내몽고, 낙양지역의 소조상과 비교작업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탑 출토 소조상은 북위 太和年間 조각양식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요녕지역 三燕 조각양식과는 직접적인 연원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북탑 출토 소조상은 당시 수도였던 平城 불상 양식과 영향관계가 보이는데, 특히 方山 思遠佛寺 목탑지 출토 소조상과 아주 유사하다. 조각수법, 조각양식, 채색 등 두 지역 소조상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듯 북탑 출토 소조상의 연원이 평성 사원불사 소조상에 있었던 배경으로는 두 곳의 공양 발원자의 동일성을 지적하였다. 당시 북위 정권을 장악했던 풍태후가 자신의 무덤 부근과 자신의 고향에 각각 목탑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당시 최고의 장인집단을 고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두 곳에 참여한 공인이 동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탑 출토 소조상의 봉안 장소와 그 原形에 대해 추정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현재까지 발굴이 이루어진 남북조시대 불교 사원 유적지로는 산서성 사원불사, 내몽고 사원 유적지, 하남성 영녕사, 하북성 업성 사원 유적지가 있다. 이 사원 유적지들의 발굴은 대부분 사원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목탑에 치중되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남북조시대에는 목탑이 가장 중요한 예배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원 건축물 중 규모가 가장 컸다. 당시 공양자들이 예배한 목탑의 대상은 목탑 외관이 아닌 목탑 내부에 봉안된 소조상이었다.

북탑 출토 소조상은 목탑 내부에 설치된 향토 탑심체의 동, 서, 남쪽 불감 속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향토 탑심체는 1층에서부터 꼭대기 층까지 설치되었으며 그 곳에 봉안된 소조상 역시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부착되었을 것이다. 현재 북탑에서 출토된 소조상의 전체높이는 30cm

가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예들이기 때문에 목탑 내부의 1층이 아닌 상부 층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추정하였다.

Abstract

A Study of Clay Figures From the Northern Tower in Chaoyang, Liaoning Province

Yang Eungyeng*

I studied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research, formation date and arrangement of clay figures from the Northern Tower in Chaoyang in Liaoning Province.

I arranged artifacts from excavation and research throughout restoration process, and I also examined about erection history shortly. The square column forming the core of the northern tower was established in Tang dynasty and bricks and sculptures in appearance were repaired in Liao dynasty. Foundation stones inside were brought from royal place site in Northern Yan and the northern tower was founded as Pagoda of Missing Yan by Empress Feng's prayer in Northern Wei.

I looked into the foundation date and the origin of form of clay figures which was excavated in sedimentary layers at northern tower of south. I drew a conclusion through comparing Statues of Buddha and Statues of Bodhisattva from the northern tower and clay figures of Liaoning Province, Pengcheng area, Neimenggu province, Luoyang area. In conclusion, clay figures from the northern tower were fairly appeared that those were similar to sculpture form of the time of Taihe in the North Wei, and it was very difficult to find direct origin relationship with Three yeon

*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Liaoning Province.

Clay figures from the northern tower had relationship with Buddha form of Pengcheng which was the capital in those day, especially they were quite similar to clay figures from Fangshan Siyuan Temple Woodern Pagoda.

Clay figures from both provinces are almost equal in sculpture method, sculpture form and clothing. Like this, the reason that the origin of Clay figures from the northern tower had connection with Siyuan Temple of Pencheng area was equality of memorial service prayer in both places. At that time, Empress Feng who assumed power established two wooden towers near her tomb and hometown. She probably hired the best craftsman group, and we couldn'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same group took part in those two works.

I tried to presume about the enshrinement position of clay figure from the northern tower and the original form. The temple sites of the Period of North and South Dynasties which were excavated till nowadays were Shanxi Province Siyuan Temple, Neimenggu Province Temple Site, Henan Province Yongning Temple, Hebei Province Ye City Temple Site. The excavation of these temple sites were given undue value to a large size wooden pagoda which was located at the center of temple.

In other words, the wooden pagoda was the most important worship subject during the Period of North and South Dynasties, so it was the biggest thing for all the temple building. At that time, prayers worshipped clay figures in the wooden pagoda, not the outward of wooden pagoda.

It was presumed that the clay figures from the northern tower were enshrined in eastern, western and southern buddhist niches of the square column forming the core which were established inside the wooden pagoda. The square column forming the core was established from 1st floor to the last floor, and clay figures were also attached 1st floor to the last one. The total height of excavated clay figure from the northern tower was not even 30cm at all, so it was presumed that clay figure was enshrined upside, not in the 1st floor.